



“특별도슨트가 보여주는
예술적 몸짓과 언어가
역동적인 그래픽, 음악, 조명과 어우러져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합니다.”



몸으로 부딪힌 역사

금요일 14:00
토·일요일 11:00 / 14:00

민주화운동기념관 M1 B1
상설전시실 1, 2

자유관람 / 무료

공연시간 외 단체관람 문의
02-6440-8976, 8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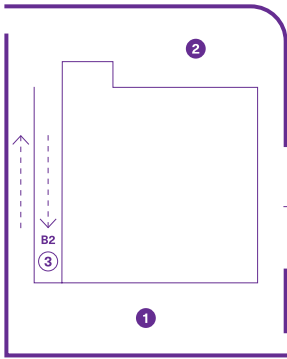
특별도슨트

2025.
6.13^금 - 12.28^일

춤으로 전하는 기억

고정관념을 깨고 생동감을 더한 특별도슨트

민주화운동기념관 특별도슨트는 관람객에게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함께 공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대형 LED 스크린에 흐르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역동적 그래픽과 음악, 조명 등으로 재구성되며, 여기에 더해 도슨트가 말과 몸짓으로 관람객과 직접 소통합니다. 일반적인 전시 도슨트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관람객에게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관람장소
민주화운동기념관 M1 B1 상설전시실 1, 2



1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

관람시간
15분

관람장소
상설전시실 1

프롤로그 우리 이웃의 이야기



시민들이 이끈 민주화운동은 멀지 않은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4·19혁명 국민의 위대한 승리



학생들의 외침으로 시작해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까지, 대한민국 첫 시민혁명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 1960년, 장기집권을 노리는 부정선거에 맞서 일어난 2·28 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그리고 3·15 마산의거는 4·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유신헌법반대운동 군부독재에 맞선 끝없는 저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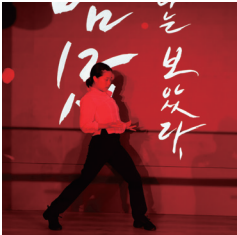


철저한 통제사회에서도 군부독재의 독압적인 유신체제에 맞선 처절한 저항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 5·16 군사정변 이후 6·3 한일회담반대운동, 3선개헌반대운동, 유신헌법반대운동을 거쳐 일어난 부마민주항쟁은 유신반대운동의 정점이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아! 광주여!

시인 김남주의 시 '학살'을 통해 5·18 광주의 아픔과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되새깁니다. 5·18 정신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햇살이 되었습니다.



6·10민주항쟁 민주주의 역사의 분수령

4·13 호헌초치 등 군부독재의 장기집권 시도를 막아낸 6·10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분수령입니다.

▶ 인천 5·3 민주항쟁 다음 해인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및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으로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 저항이 거세졌고, 이것이 6·10 민주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에필로그 국민이 만드는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방향성은 참여하는 국민에 의해 결정됩니다.



2 한국 민주화운동의 주체

관람시간
20분

관람장소
상설전시실 2



민주화운동의 기수

민청학련 사건 당시 구속된 학생들의 겁박당한 두 손이 상징하듯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학생들의 저항정신을 기리며, 랩 음악을 통해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냅니다.



성장의 그늘, 도시에 모여든 사람들

1970년대 합평 고구마 사건과 광주 대단지 사건을 배경으로 농민에서 도시 노동자로, 빈민으로 살아간 인물을 통해 사회의 불균형과 생존권 문제를 조명합니다.

민청학련 사건 1974년 유신헌법에서 선포한 '긴급조치 4호'에 의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약칭 민청학련)」을 중심으로 180명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고문과 강압수사를 통해 조작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합평 고구마 사건 고구마 수매 문제를 놓고 농협이 농민들을 속이자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천주교 광주대교구와 연대, 투쟁한 사건입니다.

광주 대단지 사건 서울의 무허가 판자촌 정리를 명분으로 광주 대단지로 빈민들을 강제이주 시켰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분노한 대규모 이주민들이 항거한 사건입니다.

펜과 마이크를 통한 저항

1980년대 정권 유지 목적으로 보도지침, 언론통제법 등의 언론탄압이 이루어진 가운데 해직을 각오하며 언론자유를 위해 저항한 언론인들의 고뇌와 투쟁을 그림니다.



언론통제법 1980년대 언론통제법은 언론을 체제에 순응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누군가의 엄마, 아내라는 고정된 영역함을 넘어 세상의 모든 차별을 부정하고, 모두를 위한 세상을 꿈꾸며 평등할 권리를 위해 싸웁니다.



민주화운동의 또 다른 주역

5·18민주화운동을 세상에 알린 기자 윌트겐 힌츠페터와 화가 도미야마 다에코처럼 한국 민주화운동에 연대한 외국인을 기억합니다.



출연진

온앤오프는 '자유 몸짓'을 슬로건으로 2001년 창단한 공연예술단체입니다. 이들은 춤과 움직임을 중심으로 장르와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접근을 통해 무용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별도슨트는 2인 구성을 기본으로 군무형 등 멀티 캐스팅으로 진행합니다.



도유



한창호



김에은



이동명



조은서



이경현

특별도슨트 몸짓 - 민주의 물결

“덩굴처럼 뻗고 물결처럼 흐르는 몸짓 속에서 민주주의는 역사의 심장으로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만족도조사에 참여해주세요!

민주화운동기념관의 더 나은 상설전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만족도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만족도조사에 응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립니다. 매일 20명, 커피 쿠폰 10,000원

조사 기간
2025.6.13.(금) - 12.28.(토)

추첨결과 발표
매일 마지막 주 금요일(개별 문자)

